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5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5(통50). 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야는 붉게 물들고 거리의 은행나무는 황금나무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주님의 순리를 따라 아름답게 한해살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가쁘기만 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금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늘 갖고 싶은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넘치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 이웃과의 사이에 장벽을 쌓는 이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예수님처럼 영혼이 부유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12 인도자

♠ 교 독 문 74. 마태복음 5장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소진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12(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다함께

성경봉독 I. 시67:1-7 권하영 학생

..... II. 롬5:1-5 강순배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온 세상, 온 백성 손성현전도사

..... II. 불굴의 신앙 김기석 목사

찬 양	새교우
♠ 봉 헌 315.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참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언제나 그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작은 시련에도 쉽게 좌절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면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있는지 살피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날을 꿈꾸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하정석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영실 선생	전수정 학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규석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곽상준 정현숙 백성례 최경미
	헌금위원	한상익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성숙과 자유를 위한 소속감(1)

자신의 이익과 영광, 자신의 자율성과 능력과 힘의 증대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주의는 공동체와 상치된다. 그런 개인주의는 순응을 요구하는 엄격한 공동체의 억압적인 소속감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잠재력과 자의식을 개발시키려는 욕구에 기인한다. 또한 개인주의는 더 큰 힘과 부를 얻기 위해 모든 권위와 법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은 소속감이 개인주의와 사회 사이에 꼭 필요한 매개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무엇보다도 소속감은 우리의 성숙과 자유를 위한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소속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감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갖는 감정 사이의 균형점 역할을 한다. 소속감은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된다. 소속감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의 만남도 내적인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사회는 우리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방법과 능력을 갖추는 방법을 배우 곳이다. 사회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가능케 해주는 급여를 받는 곳이다. 사회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어떤 이는 정의를 위해 일하고, 어떤 이는 평화를 위해 투쟁하며,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기도 한다.

반면 공동체는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공동체는 자기 자신, 자신의 두려움, 폐쇄성, 폭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도록, 각자의 재능과 약함을 발견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곳이다.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한다. 함께 일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하고, 서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누군가가 다른 이를 힘들게 함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좀더 덜 가진 사람이, 겉보기에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존중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진정한 공동체에서 힘은 위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함께 일해 나가는 모든 구성원에게서 나온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한 사람으로 여기지 결코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는다. 서로에게 열려있고 활발하게 교류하기에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런 식의 상호협력은 쉽지 않다.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공동체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공동체는 화, 질투, 폭력, 협동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수차례 훈련의 시간을 거쳐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게 될 때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와 함께 살며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좋은 지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뺀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선함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껍질을 깨뜨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서로 참 생명의 초대를 주고받게 된다. 서로 부대끼는 다이아몬드의 광택작업과 같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과 같이 재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어떤 개인도 우주의 중심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작다. 그러나 우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고 나와 다른 이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이유는 그들을 그들 자신으로, 각자가 남다른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해야 함을 배워서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깨지기 쉬운 마음을 지닌 한 사람으로 봐야 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준 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다. 내적인 자유에 이르는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마음의 사람들, 아파 보이는 사람들 혹은 위기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각 개인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가을밤에

손광세

여옥이, 주영이, 순집이, 연진이, 진수, 금아, 정아, 순자, 복희, 설아, 영희,
둘순이, 둘자, 판숙이, 판점이, 점순이, 순옥이, 춘자, 일남이, 명희, 선옥이,
필선이, 소옥이, 귀연이, 명금이, 옥심이, 계속이, 은하, 진희, 봉순이, 옥연
이, 미숙이, 영숙이, 숙자, 우정이, 인순이, 갑님이, 선이, 성희, 영아…….

가을 밤,
귀뚜라미가 출석을 부른다.
출석부에 없는 이름들을 부른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따라 떠오르는 이름 하나하나가
가을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용길 최영혜 박영희 백묘현 안정숙 이한림 김명희
 김성한 조영순 박용진 김용원 허신열 강금연 이우영 김종락 박영신
 김수진 배재선 최중훈 김금화 한수현 이지혜 김정애B 무명

월정헌금:

고속이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옥순 이성범 이인웅 오송경 정두리 박상규 김현주 박인혁 한정애
 이영우 배연선 이재훈 유상진 유은정 한숙경 무명

감사헌금:

이우원 옥귀희 조병무 송양진 안상철 박수정 이창석 김지훈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재환

녹색꿈 헌금:

오자영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정두리	송임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소순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선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교회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배상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2.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해 각 부서의 2010년 활동보고서를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3. **방문** : 오늘 동녘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청파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 **영어교실** : 영어교실이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1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5. **신앙실천** : 바벨수록 기도하십시오. 아침저녁 10분 이상 기도시간을 마련하십시오.
6. **대접** : 지난 주 결혼한 박지인 성도가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갈릴리 속)
 - * 설거지 봉사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다음 주 : 김대근 김세진 곽상준)
 - * 새교우 : 백다니엘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